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의 활동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Services based on Practitioner's Experiences: With Practitioners for Out-of-School Youths

박병금
서울디지털대학교

Byung-Kum Park(bkpark@sdu.ac.kr)

요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활동경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와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복지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7명이며,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현장전문가의 경험은 진솔한 의미를 가지고 주제 17개로 재조직화 후 5개의 범주로 합치기가 되었다. 경험의 5개의 범주는, “즐겁지 않은 학교”, “행복하지 않은 가족”, “아픔 뒤에 혹은 핑계 뒤에 숨는 아이들”,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보자”, “세상이 바뀌었으면”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것을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학교를 떠나고 학교를 떠난 후 생활에 대한 과정을 직접 듣고, 함께 생활하면서 겪은 현장전문가들의 실질적 지원과정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복지정책에 기여하고 실천적 지원방안 모색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중심어 : | 학교 밖 청소년 | 현장전문가 | 활동 경험 | 질적 연구 | 현상학적 연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henomenological study was to explore the practitioner's experiences according to practitioner's perception an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about them.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research, 7 practitioners with out-of-school youths participat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In addi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a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meaning of experiences in practitioners with out-of-school youths were identified as 17 themes and 5 categories. The 5 categories consisted of "School is not amused", "Family is unhappy", "They hide behind pain or excuses", "Let's go together, until it can be found", "We hope the world changed".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meaning of experiences in practitioners with out-of-school youths. And lastly, this results made suggestions for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for them.

■ keyword : | Practitioners | Out-of-school Youths | Practitioner's Experiences | Qualitative Study | Phenomenological Study |

* 본 연구는 충북아동가족연구소가 수행한 과제의 자료를 활용함.

접수일자 : 2016년 11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01일

수정일자 : 2016년 11월 22일

교신저자 : 박병금, e-mail : bkpark@sdu.ac.kr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현재 규정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혹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상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매년 약 7만 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지만 일부만이 복학하고, 나머지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고 있어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3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약 28만 명으로 추산된다[1]. 약 28만 명의 소재 미 파악 청소년 수는, 국내출생과 해외 유입 초·중·고 학령기 인구에서 정규학교와 기타학교(특수·공민학교, 방통교 등) 재학생, 그리고 소재가 파악되는 학교 밖 청소년(미인가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보호관찰, 소년원, 소년교도소, 유학, 장기입원 등)을 제외한 인원으로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이 어려운 청소년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생애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적·사회적으로 낙오의 원인이 된다. 더 이상 돌봄을 받을 수 없고, 생계 곤란으로 인해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2].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후에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범죄친화적인 위험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초·중학생 연령의 학업중단자는 비행형으로의 높은 이행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3].

또한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남기곤[4]은 고졸 이하의 학력층은 생애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적으로도 적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매년 6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으로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5] 청소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중단 예방뿐만 아니라 이후의 과정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상당한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학업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6-8]. 청소년 이 학교를 떠나는 과정에서도 진로나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청소년은 '무업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 중 '직업형'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복학절차나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준비,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에 대한 정보, 학업중단숙려제 등 학업지속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우가 많으며, 학교를 떠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들은 주로 부모님 등 주변사람이나 인터넷을 통해 진로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다 전문적인 정보출처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9].

학교 밖 청소년은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공교육에 비해 국가차원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1인당 공교육비는 중학생(4,454천원)과 고등학생(5,923천원)이 약 4-6백만원인데 비해[10]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학교 밖 지원센터나 쉼터 등의 운영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자의 대다수는 고등학생 연령대이므로 청소년이 20대 후반에 도달하기까지의 장기적인 지원책도 시급하다[3].

현재 우리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학교를 떠나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과 학업중단과 동일시하는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대처를 하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학교중단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쉼터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은 여전히 학생에 대한 이해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만 강조하고 있으므로 학교를 떠나려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전무하

며, 학교와 학교 밖 지원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조체계는 부족하여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으며, 현장의 전문가들 또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유형을 찾고 유형별 맞춤형 진로 지도와 복지 지원을 강조하거나[1][10], 학업중단과정, 사회적응, 학업복귀 과정 등에 대한 경험을 담은 질적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며[6][8][11][12],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과 복지욕구[13], 사회적응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부정적 인식, 편견[12-14],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캠프 또는 자립 등에 대한 논의[15][16]들이 있다. 그리고 학교재학 청소년의 학업중퇴의도, 학교재학 및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제시한 연구의 비율이 높다[17].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 밖 혹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다.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담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18]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9]가 있었다.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을 보고한 연구[16]에서도 2002년~2011년 사이에 청소년, 친구, 교사 대상으로 2편(4.5%), 교사 1편(2.3%), 상담자 1편(2.3%)로 조사되어 학업 중단 청소년 이외의 주변환경체인 부모, 교사, 상담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경험을 반영한 실제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비공식적 지지지원과 함께 전문가집단이라는 공식적 지원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경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전문가집단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윤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또 사회문제를 정의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20]. 현장전문가를 대상

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들[20-23]을 통해 볼 때, 이들의 현장에서의 활동경험은 대상 집단을 위한 문제예방 방안과 서비스의 문제점, 효과적인 지원방안, 그리고 개선방안 등의 모색에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경험의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예방하고, 학교를 떠나는 과정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것을 결심하고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경험의 이야기이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활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의 경험과 욕구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심층적 탐구를 통해 대상자의 사고, 지각, 느낌에 대하여 조명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질적 연구 방법이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의미 있게 다루는데 적절하다[24][25].

특히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대상자들의 기술을 분석하여 그들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하고[26],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의미를 기술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드러내는지를 보는 것, 참여자들의 경험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포함하는 문제를 연구할 수 있게 한다[27].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전문가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내적 경험을 심도 있고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개인의 인생이 아닌 현상을 경험한 여러 명의 개인들을 면접하고 개인적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원칙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함께 이러한 의미들이 그 경험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기술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28], 주어진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기보다 사물이나 현상의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이므로[29],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전문가의 경험이 어떠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적합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겪는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심층면접을 통한 Colaizzi[30]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이는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의 본질과 이러한 전후과정은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본 연구의 질문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인식과 활동경험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 현장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탐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활의 경험 속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학교 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의 모색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과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 참여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의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연락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현장전문가와의 면담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연구 참여의 의사가 있는 총 7명의 현장전문가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충청권 지역의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NGO, 검정고시학원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을 포함하였고, 총 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경력은 평균 10.14년(표준편차 5.63)이다.

표 1.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성명	성별	경력	소속
전문가 A	여자	6년	00시 청소년쉼터
전문가 B	남자	5년	00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 C	여자	10년	00시 청소년쉼터
전문가 D	남자	20년	교육생활공동체 OO
전문가 E	여자	5년	00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 F	남자	15년	00시 꿈키움센터
전문가 G	남자	10년	0000 검정고시학원

3. 자료수집방법과 과정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권익이 우선되어야 함을 연구 진행의 전반에 걸쳐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면접 전 연구의 목적과 면접의 내용 등의 설명을 들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연구 동의서를 교환하였고, 연구자들에 대한 소개, 연구목적, 면접내용에 대한 활용, 비밀보장, 녹음에 대한 허락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접 내용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기간 동안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개별 면접이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녹취된 면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공지하였다. 면접내용을 모두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해 녹음하였다. 면접은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에서 총 2회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약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직후 필드노트(field note)에 면접과정에서 떠올랐던 주요 아이디어와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기술하였다. 면접 초기에는 특별한 질문 없이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들으며 자연스럽게 연구문제로 연결하였다.

연구대상의 경험을 끌어내기 위해 개방형질문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주요 질문은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떠나는가?’,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소속된 기관에서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등 이다.

연구 면접은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실시하면서 녹취하였고, 녹취내용을 서로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4. 자료분석과정

본 연구는 Colaizzi[30]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분석한 절차에 따라 첫째, 녹음한 면접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연구대상의 말을 그대로 기술하였고, 둘째, 기술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았으며, 셋째,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을 대상들의 언어로 소주제화 한 후, 넷째, 소주제들을 통하여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주제를 현상학적으로 구조적인 기술을 하였다[31].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한 원자료를 여러 차례 읽고,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중복된 진술을 제외한 구성된 의미가 추출되었다. 셋째, 재진술한 의미를 가지고 17개의 주제를 조직화하였으며, 넷째, 최종 5개의 범주로 합치기가 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활동경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주제 분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녹취한 원자료와 필사자료를 비교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2차 면접이나 전화 통화로 재확인하였다.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여 문자화하고, 진술을 반복하여 읽었다. 본질을 찾고자 의미 있는 진술을 찾는 작업을 통해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소주제화하여 범주화하는 단계를 총 5차례 거쳤다. 5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학교 밖 청소년

들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은 상호연관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것을 선택하는 때부터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기술하였다.

5. 엄격성 평가방법

질적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엄격성(rigor)을 평가하기 위해 Lincoln과 Guba[32]가 제시한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29].

사실적 가치, 즉 참여자들의 생각과 실재를 잘 반영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고 본질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한 맥락적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신뢰할 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진술내용에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지 않는 상태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여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선이해, 편견, 가정 등을 갖지 않도록 연구의 시작에서 끝까지 노력하며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또한 일관성은 어떤 연구가 비슷한 참여자와 비슷한 설정에서 반복되었을 때 연구결과가 거의 동일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각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질적연구와 현상학적 연구를 여러 번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여러 차례의 자문을 받고 협의하여 수정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를 논의하였고, 연구분석과정에서도 주관적 관점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III. 연구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한 원 자료를 추출해낸 주제와 범주화는 [표 2]와 같다. 원자료 진술에서 17개의 주제를 조직하였고, “즐겁지 않은 학교”, “행복하지 않은 가족”, “아픔 뒤에 혹은 핑계 뒤에 숨은 아이들”,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보자”, “세상이 바뀌었으면”의 5개로 범주화되었다.

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의 활동 경험

범주화	주제
1. 즐겁지 않은 학교	1) 학교라는 틀
	2) 재미없는 학교생활
	3)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4) 힘든 인간관계들
	5) 돌아가지는 못하는 길
2. 행복하지 않은 가족	1) 가족과 쉼터가 집
	2) 보호해 주지 않는 가족
	3) 갈 데 없는 아이들
3. 아픔 뒤에 혹은 핑계 뒤에 숨는 아이들	1) 다친 마음
	2) 꿈이 없는 아이들
	3) 부정적 인식
4.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보자	1) 홀로 설수 있도록
	2)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3)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5. 세상이 바뀌었으면	1) 일하기 힘든 여건들
	2) 희망하는 것들
	3)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1. “즐겁지 않은 학교”

1.1 학교라는 틀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교칙, 규칙과 규율의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제도 안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경우 청소년들이 학교에 부적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는 20여년 전의 학생 상을 현재의 학생들에게 여전히 강요하고 있고, 과도한 경쟁심 유발로 인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참여자 B, E, F, G).

저희 애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선... 학교에 교칙이 있잖아요. 교칙의 억압,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좀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그 제도 안에 있어야 한니까 싫은 거죠. (참여자 B)

아이들이 최근에 규칙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는 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 (중략)... 학교라는 것은 제도권 안에서 학력 위주의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틀에 박힌 것에 적응하는 문제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참여자 E)

1.2 재미없는 학교생활

학교 교육은 진학 위주의 교육과정이며,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와 동떨어진 교육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고 있다. 꼭 학

교를 다니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인식과 문화의 변화도 학교를 떠나는데 이유가 되고 있다(참여자 A, B, C, D).

흥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입시 위주의 그 교육을 하다보니, 학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받자하니 너무 그게 힘든거예요. 학업스트레스... 그런 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아니면 뭐 공부하기 싫어서(참여자 C)

그거 아니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학교 자체 내에서 스트레스라기 보단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에 대해서 별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거 같아요. (참여자 D)

1.3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도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떠나게 하는 이유이며, 특히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로 인해 학교를 떠난다.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들은 여러 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소수나 개인이므로 학교에서는 소수자인 이들이 학교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참여자 C, D, G)

실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은 학교 폭력이나 왕따 같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 학폭위를 연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그칠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또한 왕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가해자를 여러 명 처벌하기 보다는 그 피해자가 쫓겨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흔하고, 또한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학교에서는 경계하기 때문에 묻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참여자 G)

1.4 힘든 인간관계들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갈등이나 선생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학교를 떠나고 있었다. 또래 갈등으로 인해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후회하기도 하고 있다. 선생님과의 갈등과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은 학교생활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참여자 A, B, E, F).

또 사회성하고 관계가 되긴 하겠지만..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가

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참여자 A)

학교 선생님하고의 갈등... 그리고 집단, 학교에 적응 못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담임하고 안 맞아서 이제 그게 좀 안타깝죠. 선생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학교를 그만 둔 친구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가을 때부터 나를, 난 짝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나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참여자 F)

1.5 돌아가지는 못하는 길

청소년들은 원하던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실패한 후 인문계로 진학할 수밖에 없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전학생과 복학생인 학생들은 낙인으로 인해 후배들과 학교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또 운동부인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지만 누구의 관심과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이들은 학교가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참여자 C, F, G).

아이들이 학교에 복귀를 되더라도 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특수한 아이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학급이 구성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쉼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복귀를 해서 동생들이랑 수업 듣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서 또 다시 또 자퇴를 하고... '나는 이제 도저히 학교생활을 못 하겠으니까 검정고시로 돌리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참여자 C)

2. “행복하지 않은 가족”

2.1 가출과 쉼터가 집

청소년들 중에서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겨 집을 나오게 되고, 학교도 중퇴하는 사례도 있다. 가출 후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쉼터에 입소하지 못한 아이들은 위협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현실이다(참여자 A, C, D).

아이들은... 사실 쉼터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리이러한 것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언을 해주고 지도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왔는데 왜 선생님한테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참여자 C)

가출 비슷하게 집에 자꾸 안 들어가고, 부모 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도 자연스럽게 안 다니게 되고 그랬던 거 같고, 또 집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문제 때문에 학교를 관두게 되면 거의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 확실히 많았던 것 같고... (참여자 D)

2.2 보호해 주지 않는 가족

가족은 청소년들이 힘들 때 지지가 되어준다. 그런 가족이 부재하여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기 쉽다(참여자 C, D, E, F).

이제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도 학교를 가지 않고 떠나는 친구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개인 가정적인 측면을 보면 집이 싫거나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가정환경이 안 좋거나 뭐 그런 경우고.....(참여자 F)

2.3 갈 데 없는 아이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대상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들은 쉼터에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현실이다(참여자 A, C).

사실은 저희 청소년 쉼터가 단기 쉼터라서 2회 연장해서 9개월까지 최장 보호는 할 수 있되, 그 이후에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기초수급자격이 있는 아이들의 자립관으로 연계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립관으로 연계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차상위계층이라던가 기초수급자격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빈곤한 형태에 있는.. 그리고 양육자가 부모님이 양육을 거부하거나 또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 그래서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아이들은..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참여자 A)

3. “아픔 뒤에 혹은 핑계 뒤에 숨는 아이들”

3.1 다친 마음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경험과 학교에서 거부당한 경험들로 인해 현장의 전문가들에게도 불신감을 갖고 있다. 처음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을 찾아오지만 그 발길이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참여자 A, D).

아이들은 계속 자기 아픔 뒤에 숨거나 아니면 핑계 뒤에 숨죠.

...(중략)...아이들이 ○○에 많이 붙어있진 않은 거 같아요. 생각보다... 학교 밖 청소년... 그런 학교를 관둔 청소년도 꽤 많이 오긴 하는데 아이들 스스로 부담스럽게 느끼곤 하는... 처음엔 즐겁게 놀러 오긴 하는데, 어쨌건 막상 그런거잖아요. 같이 좀 어른 대 어른으로 약간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준다는 정도의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여자 D)

3.2 꿈이 없는 아이들

진정한 행복을 찾아 노력하는 청소년들은 드물며 무기력하고 꿈과 목표의식이 없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참여자 A, C).

아이들이 목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꿈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꿈이 없다보니 학업에도 관심이 없고, 흥미도 없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좀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C)

3.3 부정적 인식

청소년은 학교를 다녀야한다는 사회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도 차별을 받는다(참여자 D, E).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것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학교를 안 다닌다 하면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택시기사, 택시를 타고 다닐 때, '왜 너는 낮에 이런 곳에 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시각을 조금 바꾸는 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참여자 E)

4.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보자”

4.1 홀로설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들은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상담과 함께 학업중단숙려제를 거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다(참여자 A, B, C, E, F).

이미 심터에 오기 전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은 지금은 중학교 졸업 학년만 가지고는 미래에 어떤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검정고시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참여자 C)

지금 당장 공부보다는 취업이라든지 뭔가 일자리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취업 관련된 거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참여자 E)

4.2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를 그만 두려고 마음먹었지만, 혹은 이미 그만 두었지만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복교전 프로그램, 대안학교 등 실질적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참여자 A, C, E, F).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Wee 클래스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학업중단 숙려제도 한번 고려해보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진행하고.. 사실 학교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복귀하지 않는 아이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참여자 A)

학교에서 의뢰하는 청소년대상 복교전 프로그램운영, 복귀전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복학하기 전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참여자 F)

4.3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은 기본생활습관에서부터 안전교육, 예절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전문가들은 혼자 끼니해결하기, 경제훈련, 빨래, 설거지, 청소 등을 가르치고, 학생 때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참여자 B, C, D, E, F).

아이들이 오면 일부러 밥을 같이 해먹고 알려주고 하면, 어느 정도 혼자 끼니를 해결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경제적인 훈련도 시키고... 학생 때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참여자 B)

어쨌건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역에 학원이 됐든 연결하면서 자기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같이 가보자 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요. ...(중략)... 약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 안에서 기다가 됐든, 뭐 사 진 촬영을 하든, 어쨌건 자기가 좀 더 세상을 폭 넓게 바라 볼 수 있는 도구로서 다양한 기술들을 좀 배웠으면 해서 약간 강제하는 게 약간 있긴 해요. (참여자 D)

5. “세상이 바뀌었으면”

5.1 일하기 힘든 여건들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며, 인력부족, 예산부족 및 근무여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종종 법률적 자문을 구할 일들이 생겨도 활용자원이 부족하여 난감함을 경험했다. 청소년들에게 기관 홍보가 되지 않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정보가 기관으로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역설적으로 대상자 모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참여자 B, E, F).

우선 공간이 부족하고요. 올해 5월부터 여기 공식적인 센터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상담복지센터 안에 같이 있어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와서 다른 활동을 해요. 그러면 많이 시끄러워요. 그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고요. 인력과 예산은 따라 오겠죠. …(중략)… 여기서 뭘 하려고 해도 너무 한정적이라 뭘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이나 시설 부담감도 있고 해요. …(중략)… 그리고 법률적인 점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 전화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문을 구하긴 하죠. 그런 부분이 난감할 때도 있고 아이들을 설득 시킬 때 고집이 센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점도 많죠. (참여자 B)

학교 밖 자원센터 실무자들이 이직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 년에도 한 달 일하고 그만 두시거나 …(중략)… 계약직이고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2년을 넘길 수가 없는 근무 여건이긴 하거든요. …(중략)… 그리고 이제 조건이 더 좋은 곳을 가고자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급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중략)… 실무자가 계속 변경이 되면 일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피해를 입거든요… (참여자 E)

5.2 희망하는 것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홍보가 필요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후대책만이 아닌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을 발굴하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보급되길 바란다. 더불어 기업들과 연계가 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하며,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전문기관들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참여자 A, C, E, F).

정말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관이라던가,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워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그런 아이들한테 홍보가 돼서 그 많은 아이들이 좀 참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A)

아이들이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아이들의 처해진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략)… 보통 바리스타나 요리나 워미용 등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부분을.. 폭 넓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악쪽이라든지, 체육쪽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쪽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참여자 C)

일자리가 필요한 친구를 기관과 연결해서 아이가 일 할 수 있도록 자원연계를 해야 되는데 연계 자원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아이가 몇 번 저랑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가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중략)… 연계자원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을 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아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 탐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요. 우수 기업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 또 기존에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거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연계가 좀 잘 되요. 근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조금 거리감을 두시는 게 있기도 한 거 하고요. (참여자 E)

학교 밖 청소년정책은 잠재적 학업중단위기학생들에 대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학업중단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 선생님들이 보통 학업중단에 관한 안 좋은 점만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중략)… 너 학교 그만두기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학업중단 이후에 너한테 지원되는 이런 것들이 아는게 없냐고 했더니 전혀 없어요. (참여자 F)

5.3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키며 일할 수 있게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보호권과 권리에 대한 예방 교육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청소년들이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참여자 D, E, F, G).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만 실제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생기기 때문에…(중략)… 실제로 일할 권리를 안 주니까 아이들이 일 할 수 있는 데가, 음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밖에 없고. …(중략)… 정당하게 자기가 일하면서 이 생활이 자기 삶에서 맞는지 아니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지 아

니면, 좀 더 전문지식을 쌓을지에 대해서 약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여자 D)

시내버스 요금 체계에서 학생할인이 아닌 청소년할인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기사님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해요. 공교육 밖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버스 탑승 시 모욕을 당했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 (중략) ... 인권위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수시 미선발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는 역으로 수시 선발을 하다가 2년 전부터 미선발로 바꾸었고 ○○교대는 아예 선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참여자 G)

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것을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학교를 떠나고 학교를 떠난 후 생활에 대한 과정을 직접 듣고, 함께 생활하면서 겪은 실질적 지원과정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느끼고 경험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7명이었으며, 개별면접을 통해 5개의 주제를 조직화하였으며, ‘즐겁지 않은 학교’, ‘행복하지 않은 가족’, ‘아름 뒤에 혹은 핑계 뒤에 숨은 아이들’,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보자’, ‘세상이 바뀌었으면’의 5개의 범주로 합치기가 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틀과 학교의 규칙과 규율로 답답함을 느끼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는 현실과 진학위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재미없는 학교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그리고 선생님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힘들어 학교를 떠난다고 하였다. 운동부 학생이나 전학생과 복학생들은 공부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도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며, 오히려 운동부 또는 전학생, 복학생으로 낙인찍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윤철경 등[3]의 연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가 공부가 싫어서,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친구들이 싫

어서, 학교규칙이 엄해서, 선생님이 싫어서 등 재학하던 학교의 문제가 59.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학교환경의 개선이 가장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가정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가출을 하고 쉼터를 찾게 된다. 이주연과 정제영[12]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족이 ‘당기는’ 보호행위를 하거나 ‘무관심’ 행위와 가정폭력, 가족해체와 같은 ‘밀어내기’ 행위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가정이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부합하여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홀로 살아야하는 청소년은 가출패를 형성하게 되고 범죄에 가담하거나 노출될 위험에 놓여지게 된다.

현장전문가들이 만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 학교, 친구 등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이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들과의 만남에서도 불신감이 드러난다고 했다. 한편 다친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청소년들도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게다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학교 밖의 환경에서도 청소년들을 차별받게 한다고 하였다. 최지연과 김현철[33]의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어 하는 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인식’을 보고하고 있어 사회의 인식이 변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무기력에서 벗어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겪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업지원을, 학교복귀전 프로그램 지원과 대안교육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기본생활지도, 안전교육, 예절교육, 경제교육 등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현장전문가들은 일하기 힘든 현실의 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희망하는 것들이 생겼고, 함께 살아갈 수 있

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길 바랐다.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며, 인력부족, 예산부족 및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법률적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는 활용자원이 부족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정보가 기관으로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 모집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학교 밖 관련 기관홍보, 맞춤형 서비스,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보급되길 바란다. 청소년들도 학업중단 이후 가장 어려움도 자원부족(18.0%)이라고 말하고 있다[10]. 예방적 접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은 조아미와 이진숙[13]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으며,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학업중단숙려제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뿐이며,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교를 그만 둔 후보다는 그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기 결심하기부터 학교를 떠날 때와 학교 밖 세상의 관계와 경험들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생활과정을 듣고, 지켜보며, 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활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며,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청소년복지정책과 실천방안에 제공해주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과 강화가 가장 우선적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되는 데에는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가족과 학교환경의 경험, 그리고 학업 부담 등이 주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현장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사, Wee센터 등 위기징후 발견 시 교내외 전문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 비해[3]* 고

교급의 지원과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므로 교육복지전문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확대와 강화가 시급하다.

둘째, 학업중단 이후 지원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준비 및 진로상담, 생활지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학업중단 직후 사회정서적 지지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므로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이용 가능한 기관 및 필요한 정보들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 후 방황하지 않도록 적절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학교청소년의 예산에 준하여서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상담 프로그램, 기본 생활 유지 지원과 교육 서비스 등의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와 같은 관계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고, 학교에서도 교사로부터 폭행 및 차별 등으로 인한 상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 가정 폭력과 가족체제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기본적 생활유지를 하고 있어 의식주 등의 기본적 생활해결과 건강관리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쉼터, 검정고시학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시설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권리가 법적 테두리 내에 보호받을 수

* 학교급별 복귀율을 감안한 총 학업중단 누적인구의 연령대를 산출하면, 초등생 11.4%, 중학생 16.9%, 고등학생이 71.7%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이 증가하며, 특히 고1시기에 집중되고 있다[9].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학력과 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므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이 보장되기 어려운 단기근로자의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이용에서도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학교제도권 밖으로 나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청소년임을 인정하고 실패자로의 낙인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시민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등이 마련되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의 활동경험의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 청소년복지 정책과 실천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안교육 현장이나 학교현장의 전문상담가,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교육복지전문가 등의 학교중단예방 노력과 학교중단과정의 활동은 어떠한 경험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 전경숙,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14권, 제1호, pp.3-21, 2006.

[3]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b.

[4] 남기곤,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제40권, 제3호, pp.63-94, 2011.

[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012.

[6] 오은경,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사회적지지, 진로 준비행동, 사회적 배제 및 우울 간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제12권, 제2호, pp.65-80, 2014.

[7]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청소년의 학업중도포기 과정,”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5호, pp.141-168, 2014.

[8] 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 “현장상담자들이 인식한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과 개입방향,”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2호, pp.153-179, 2013.

[9]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 I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a.

[10] 관계부처합동,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 2015.

[11] 김상현, 양정호,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1권, 제1호, pp.81-113, 2013.

[12] 이주연, 정제영, “학업중단결정에 대한 학교밖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1호, pp.239-267, 2015.

[13] 조아미, 이진숙,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7호, pp.145-170, 2014.

[14] 이상준, 이수경, *2013년 비진학청소년 근로환경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 2013.

[15] 박창남,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미국의 사회적 기업 YouthBuild USA의 성공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8호, pp.513-546, 2014.

[16] 정현주, “학업중단 청소년 기숙형 대안캠프 모델에 관한 논의,”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2호, pp.279-308, 2015.

[17] 김범구,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4호, pp.315-337, 2012.

[18] 김효미, *미술치료를 통한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자의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탐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2014.

[20] 성정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공공서비스 전문가들의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405-406, 2016.

[21] 김현아, 이자영, “다문화상담자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다문화 현장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468-484, 2013.

[22] 현온강, 이홍숙, “청소년쉼터에서의 가출청소년과 쉼터종사자들의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1호, pp.163-195, 2001.

[23] 김순규, 최혜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실천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소진탄력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8호, pp.185-213, 2015.

[24] 박병금,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277-295, 2013.

[25] 박병금, 노필순,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의 가족적응경험에서 나타난 부담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250-265, 2014.

[26] 이선애,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7] 윤명숙, 이해경, “농촌지역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촌사회*, 제20권, 제2호, pp.191-232, 2010.

[28] J. W. Creswell, *질적연구방법론*,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역, 학지사, 2005.

[29]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2008.

[30]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31] 신경림,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제12권, 제1호, pp.49-68, 2003.

[32] Y. S. Lincoln and E. G. Guba,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1985.

[33] 최지연, 김현철,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3호, pp.103-132, 2016.

저 자 소 개

박 병 금(Byung-Kum Park)

정회원



- 1997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06년 7월 ~ 현재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가족복지